

IMF 시대에 해결해야 할 숙제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지난 12월 한 달은 우리 국민에게는 가장 괴로운 한 달이었다.

대통령선거가 있었지만 대통령후보 7명의 이름은 몰라도 IMF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새해는 IMF 시대가 도래하였다. '97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새해를 맞으며 희망찬 새 해니 하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도 없는 국가적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의 북 쪽은 식량 구걸에 혈안이고, 우리는 달러(\$)를 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한반도에 큰 재앙이 닥쳐와 이를 한민족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새 해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개방화를 국제 경쟁력을 높이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이번 IMF 사태는 우리의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이 세계화 되어야 한다는 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은행 돈을 많이 빌려오고 회사의 결산은 분식결산을 해서 재주껏 흑자 결산을 하면 능력있는 사람으로 되었으나, 이제는 투명화 등 도덕·윤리적 수준이 국제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방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이 드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도 개방은 힘들었던 모양이다. 대원군이 서면호가 우리나라에 왔을때 대포를 쏘아 물리치니 그때는 통폐하였지만, 쇠국으로 결국 국 나라는 망하고 말았다. 우리도 그간 외국으로부터 수입개방에 쫓기대회, 항의데모를 통해서 이를 저지하고 분쇄하는 데는 성공하였고, 그때마다 통폐하고 우리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결국 IMF의 섭정을 받는 경제예속이 되고 말았다.

UR협상 반대를 소리높이 외쳤지만 지나고 보면 노력에 비하여 얻은 것이 너무 적었던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실리보다 명분과 한때의 통폐함을 얻는데 너무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번 우리나라의 금융공황은 정부관료들이 현실을 바로 파악하기 보다는 체면, 명분 등에 집착하다 실기하여 초래한 인재라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가 이번 IMF 통치하에 들어간 것은

생산·유통·소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돌지 않아 오는 금융공황인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사료 효율도 높이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이유 자돈수도 높이면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양돈산업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의 흐름이 막히니 사료원료도 수입할 수 없고, 사료공장도 돌아가지 않고, 생산된 돼지도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양돈농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협회나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고, 이는 회원의 단합된 힘으로만 가능하다.

다행히 구랍 23일 사료곡물 구매에 CCC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이 되어 앞으로 사료공급에는 차질이 없겠지만,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산업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에서 하루 아침에 5천불 시대로 되어 이제 축산물 소비도 5천불 시대로 감소하겠지만, 환율의 폭등은 돼지고기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었고, 내년 3월이면 대일 수출도 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해결하면 양돈산업은 위기를 잘 넘기고 오히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현실이 너무 어렵지만 이는 양돈업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산업이 함께 어려운 것이며, 환율 인상에 따른 물가 조정이 이루어지고 안정되면 양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오히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는 더욱 체질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선진국 양돈농가를 방문했을때 그들의

손을 보고 그들의 근면, 겸손, 근검절약을 보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를 생각해 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 고비를 넘어야 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과거 선진국이던 나라가 다시 선진국이 될 따름이다. 우리는 비록 우리 스스로는 아닐지라도 IMF라는 타의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진화되어 명실공히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1998년은 21C 선진 조국, 선진 양돈국으로 가기 위한 흑독한 지옥훈련의 해로 이를 넘기면 희망의 21C로 진입할 수 있다.

선진국이란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사료도 사재기 하고, 생산된 돼지도 잘 파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마련이다. 스스로 휴약기간을 지키고, 질병도 스스로 신고하고, 생산·유통에서 약속을 지켜 신용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외환 보유고 등 IMF에 자료를 속임으로써 이에 대한 벌칙으로 금리를 올려 우리 정부의 거짓말로 약 203억\$을 손해보게 된다고 하는데, 국제화 시대에서 우리의 옛 습관, 옛 사고 방식으로 오는 피해는 얼마가 될 지 모른다.

신년(新年)이란 설 립(立) 밑에 나무 목자를 쓰고 그 옆에 도끼 부(斤) 자를 놓은 것으로 나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도끼로 찍어 버린다는 뜻이다.

새 해, 새 각오가 필요한 것이다. **養豚**